

이동중 초고속 인터넷 광주도 와이브로 시대

KT 오늘부터 서비스
안테나 800여개 설치
언제 어디서나 저렴하게



지난달 30일 아이폰 사용자가 광주시 동구 충장로 옛 광주우체국 앞에서 와이브로 서비스를 이용해 화상통화를 하고 있다. (KT 광주마케팅본부 제공)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광주 '와이브로(WiBro)' 시대가 개막됐다.

KT는 1일부터 광주시를 비롯해 부산·대구·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와 호남·경부·중부·영동 고속도로에 와이브로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해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와이브로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동안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서비스됐다.

KT는 와이브로 서비스를 위해 광주 시내 전역에 800여 개의 중계기(안테나)를 설치했다. 광주지하철 서비스는 내년께 이뤄질 예정이다.

KT는 또 내년 3월 나주·목포·순천·여수 등 전남지역의 주요 도시와 서해안·남해 고속도로에서도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브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 시내에서 노트북·스마트폰·넷북 등을 통해 무선 인터넷 접속을 위해서는 이동통신망(WCDMA)을 이용하거나, 와이파이(WiFi)

같은 무선랜을 이용했다.

그러나 이동통신망의 경우 언제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무선랜의 경우는 속도도 빠르고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별도의 장치(AP)가 설치된 특정 장소(와이파이존)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다.

와이브로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속도도 빠르고 이용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최적의

네트워크로 평가받고 있다. MP3 파일 1곡(6MB)을 전송할 경우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가 2분40초 걸린데 비해 와이브로는 40초만에 전송이 가능하다.

KT는 와이브로 신호를 무선랜(WiFi) 신호로 바꿔주는 에그(Egg)를 제공하고 있다. 에그만 있으면 스마트폰, 넷북·노트북, 태블릿PC 등 3개 단말기 어느 것에서나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HP, 에이

서 등이 10월 중저가 출시할 인텔 와이맥스 칩 내장 노트북과 넷북의 경우 에그나 모뎀 없이도 곧바로 와이브로를 이용할 수 있다.

전경태 광주마케팅본부장은 "KT가 광주시에 와이브로를 개통함에 따라 광주 시민들도 서울과 동일하게 저렴한 요금으로 초고속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편리한 무선인터넷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에어컨 끄자마자 히터·전기장판 ON

기온 쌀쌀... 난방용품 인기 후끈

온라인몰 판매 급증

추석을 기점으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초가를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라인몰에서 난방용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30일 옥션(www.auction.co.kr)에 따르면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기요,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 이상 늘었다.

카펫, 러그, 카디건, 차렵이불 등 다양한 난방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는 45%, 카펫·차렵이불도 30% 이상 판매량이 증가했다.

전기장판의 경우 이번 주 들어 옥션 인기 검색어 4~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8일에는 패딩점퍼가 새로운 인기 검색어로 올라왔다.

히터, 온열매트 등의 검색어도 순식간에 수백 단계 이상 오르면서 순위 급상승 베스트 검색어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은 단연 전기장판과 전기요로, 옥션 베

스트 100 인기가급상승 코너에는 절전형 황토타프가 지난주 대비 258계단 오르 38위에 올라와 있다.

베스트 100 계절상품 코너에서도 전기요, 전기매트와 상위 10위권을 전부 차지하며 가슴기, 공기청정기 등을 뒤로 밀어냈다.

간편하게 거실,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기히터의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으며 싱글족이 증가하면서 사무실이나 원룸에서 활용할 수 있는 1인용 난방제품의 판매량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들 "영업이익 10% 서민대출로"

11월 '희망플러스' 개선상품...신용 4~6등급 지원

은행들이 영업이익의 10%를 서민에게 대출해 주기 위해 11월 '햇살론'과 같은 서민대출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3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전날 오후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을 만나 "서민금융상품으로써 사실상 취급이 중단된 희망플러스대출을 대체하는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기 위해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특히 은행들이 전년도 영업이익의 10% 수준에

서 매년 목표액을 설정, 서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은행들은 금주중 은행장 협의를 거쳐 내주 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내놓은 서민대출 상품은 기존 '희망플러스대출'을 개선한 것으로, 신용등급 4~6등급인 저소득층에 국한해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한도는 희망플러스 대출한도(개인당 2000만원)를 감안해 설정하기로 했다. 금리는 기존 서민대출인 햇살론(평균 13%)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새로운 서민금융상품을 내놓으면 연간 1조원 안팎이 서민대출로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그러나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추진중인 '은행 영업이익 10% 이상의 서민대출 사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한 은행법 개정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서민 및 중소기업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며 전체 원화대출에서 중소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시중은행은 45%, 지방은행은 68% 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은행 예대금리차 4%대 '이자 장사'

올해 상반기에 은행들이 지난해보다 예대금리차를 크게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금리 하락기 때 은행들이 대출금리보다 예대금리를 더 많이 내리면서 예대마진을 챙긴 것이다.

30일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17개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살펴본 결과 한국씨티은행(4.06%), 대구은행(4.04%), 부산은행(4.0%), 전북은행(4.51%) 등 4곳이 4%를 넘었다.

예대금리차는 원화대출채권 평균 이자율에서 원화예수금 평균 이자율을 빼서 구한 것이며, 예대 금리차가

커질수록 은행들의 이자 이익은 늘어나게 된다.

외환은행(3.76%), 국민은행(3.37%), 광주은행(3.69%), 제주은행(3.63%), 경남은행(3.49%), 기업은행(3.82%) 등은 예대금리차가 3%대를 기록했다. 나머지 은행은 2%대였다.

이 가운데 외환은행의 경우 예대금리차가 지난해 3.17%보다 올해 상반기에 0.59%포인트나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신한은행의 예대금리차도 지난해 1.94%에서 올해 상반기 2.44%로 0.50%포인트 늘었고 우리은행도 2.42%에서 2.90%로 0.48%포인트 확대됐다.

연합뉴스

서민금융대출자 절반이상 부당 경험

심한 채권추심·연체이자율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당수가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이 7월 6~19일 수도권 소재 신용대출자 5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3.1%가 "대출 과정에서 부당함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대부분 이용자 299명은 부당함을 느낀 비율이 86.9%로 더욱 높았다. 대출 과정에서 가장 많이 겪은 부당함은 '심한 채권 추심을 당한 적이 있다'가 37.2%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는 '연체 이자율 및 수수료가 높았다'(30.1%)였다.

대부분 이용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겪은 부당함으로 '제3자의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했다', '신이자·수수료를 공제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했다' 등을 꼽았다.

대출 금리는 연 20~30%가 23.5%로 가장 많았고,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19.4%를 차지했다.

대부분 대출은 월 5.5%(연 66%) 이상의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전체의 86.4%를 차지했다. 특히 월 30%(연 360%) 이상의 초고금리를 무는 경우도 11.9%에 달했다.

연합뉴스

한은 "가계빚 심각" 거듭 경고

한국은행은 30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황을 심각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거둬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와 밀접하게 연관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지나치게 비싼 상태이며, 이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 관련 자료 입수가 가

능한 9개국과 스웨덴, 북유럽 3국 등 13개국의 가계부채 상황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로 영국(161%), 호주(155%)와 더불어 높은 수준에 속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가세를 자극하고 궁극적으로 경제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도 빨라 2000~

2009년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국제 금융위기 이후 부채가 큰 폭으로 조정됐지만 우리나라와 호주는 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 비율의 오름폭은 주로 주택가격 상승률에 좌우됐다. 집값이 치솟자 집을 사려고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었고,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연합뉴스

광주 MBC 문화탐방
영양보충보험 가입업체, 기획여행 신고업체

이런다 더 좋을순 없다!!

무안산→정족 (소림사) 직항 전세기

삼국지 증원의 땅 중국의 古都 하남성으로...
세계 유네스코가 지정한 찬란한 문화유산의 총 집합체

10월 16일~11월 13일 (매주 수, 토) 단, 9회 한정

구분	상품명	요일	출발날짜	상품가(원)
관광	소림사 / 운대산 (운문석굴) 4일	수	10/20, 27	699,000
	소림사 / 태향산 (운문석굴) 4일		11/3, 10일	799,000
	소림사 / 서안 진시황명마용 (운문석굴) 4일	토	10/16, 23, 30	859,000
	소림사 / 운대산 / 개봉포청천 (운문석굴) 5일		11/6, 13일	749,000
트레킹	충산(송림사) / 운대산 (운문석굴) 트레킹 4일	수	10/20, 27	899,000
	그랜드 캐년 태향산 대입곡 트레킹 4일		11/3, 10일	799,000
	화산 / 충산 / 운대산 중주 트레킹 5일	토	10/16, 23, 30	899,000
	태향산 / 운대산 중주 트레킹 5일		11/6, 13일	899,000

New 실속상품 출시

구분	상품명	요일	출발날짜	상품가(원)
관광	소림사 / 운대산 (운문석굴) 4일	수	10/20, 27	549,000
	소림사 / 태향산 (운문석굴) 4일		11/3, 10일	699,000
	소림사 / 서안진시황명마용 (운문석굴) 4일			759,000
트레킹	충산(송림사) / 운대산 (운문석굴) 트레킹 4일	수	10/20, 27	699,000
	태향산 / 운대산 / 충산 트레킹 5일		11/3, 10일	799,000

광주 MBC 문화탐방 전세기 사무실 [문의전화] 062)226-607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양국정부인가조건)

© 랜드뱅크여행사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42-10